미주 한인 발달장애 사역기관
ONE Ministry

The Monthly Newsletter

February. 2020 Issue 10

CONTENTS

ONE Ministry Plan for Feb. .....Page 1
ONE Ministry 사역 일지 .....Page 2
ONE Ministry 사역 일지 .....Page 3
정보의 창 .....Page 4
Photo Gallery .....Page 4
발달 장애, 더불어 배우고 생각하기 .....Page 4

ONE Ministry Plan For Feb.

2월 03일	Now & Comp New Provider Enrollment Forum 참석
2월 06일	Drug, Vaping and Bullying in School 에 대한 workshop 참석 기독실업인회 (CBMC) 예배 참여 (말씀 선포 및 사역 소개)
2월 20일	CCSP & SOURCE Provider Consultant 참석

1. 꿈글 학교를 위해 이웃 학교인 프라미스 한국 학교, 애틀란타 한국 학교, 슈가로프 한국 학교에서 교재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2월 1일 비전 교회에서 The ABLE Orchestra의 첫 초청 연주를 잘 마쳤습니다.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단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장소를 제공한 비전 교회에 감사 드립니다.

3. 원미니스트리의 ONE Heart 기도모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서승연: 404-319-0708)

ONE Ministry 사역 일지

1. 문서 홍보팀 신년 모임

신설된 문서 홍보팀을 응원해 주세요! 원미니스트리 안에 뉴스레터 발간, 홈페이지 관리, 기획서 작성, 감사 편지 발송 등을 해오신 숨은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서현정, 정진이 팀원이 작년 5월부터 첫 뉴스레터를 발행한 이후 지금까지 매달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계신 파워풀한 인재들이십니다. 1월 3일 김창근 목사님 자택에서 이 문서 홍보팀이 신년 모임을 가지며 올 해 사역 내용과 방향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작년 10월 중순에 문서 홍보팀 (기획부 산하)이 부랴부랴 꾸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원미니스트리의 사역이 확장되면서 모든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서 홍보의 영역도 점점 확장되었고, 그래서 정식으로 팀 차원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존 활동 외에도 포스터나 브로셔 제작, 초대장 제작이나 책 발행 등 원미니스트리 사역을 잘 뒷받침하는 팀으로서 잘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2. 꿈글 봄학기를 위한 필수 준비!: 봉사자 트레이닝 & 교사 트레이닝

꿈글 학교의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매번 필수로 참여해야하는 것이 봉사자와 교사를 위한 트레이닝 세션입니다. 1월 11일 프라미스 교회에서, 꿈글이 개강하기 바로 전 주에 봉사자와 교사들을 위한 트레이닝이 있었습니다. 봉사자의 경우, 당일 참석을 하지 못했다면 메이크업 세션에 반드시 참석 해야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트레이닝을 받게하는 이유는 꿈글 학교 봉사에 대해서 가볍거나 쉽게 접근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고, 기본적으로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인식 개선을 통해 열린 마음을 가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유난히 새로 조인한 학생들이 많아서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모든 봉사자들이 간 후에 바로 교사 트레이닝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간은 윤보라 교장의 원미니스트리와 꿈글 사역, 사역 방향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한성숙 교사와 황주리 교감이 제시하는 대상에 적합한 교수 방식을 엿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보라 교장이 발달 장애의 전반적 이해와 교수 방법과 꿈글 교수 방법을 설명한 후에 신입 교사 세 분을 위한 교육으로 교사 트레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꿈글을 위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참여해 주신 교사들께 감사드립니다.

3. The ABLE Orchestra 의 첫 신년 모임: Be ABLE!

1월 14일 조종배 단장 자택에서 The ABLE Orchestra 신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미경 지휘자, 황주리 교사는 물론 원미니스트리의 디렉터 김창근 목사도 함께 참여하여 The ABLE Orchestra 의 한 해 운영과 계획, 개별적 음악 지도 플랜 작성, 운영 방향에 대한 유익한 의견을 나누며 더 많은 소망과 기대를 품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정성스레 마련해 주신 일식 만찬으로 입도 더불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사에 진지하게 성심을 다해 접근 하시는 조종배 단장과 열정으로 지도하시는 정미경 지휘자와 행정적인 일 외에도 많은 뒷 일을 감당하고 계신 황주리 교사의 멋진 파트너쉽이 만드는 The ABLE Orchestra의 멋진 발전과 부흥을 기대합니다. 단원들 한 명 한 명을 멋진 연주자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꺼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The ABLE Orchestra 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ONE Ministry 사역 일지

4. The ABLE Orchestra 와 꿈글 학교의 즐거운 개강 소식

1월 9일 목요일은 The ABLE Orchestra 가 봄 세션을 오픈하는 첫 날이었고, 1월 18일 토요일은 꿈글 학교의 개강일이었습니다. 원미니스트리의 교육부 프로그램으로 나란히 시작되는 모습이 잘 준비되고 안정된 인상을 주었습니다. 첫날 연습하는 디에이블 단원들의 연주가 안정되고 훌륭해서 지휘자님이 놀라워 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꿈글 학교 초창기에 개강날마다 혼란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여섯번째 학기를 맞는 학생들의 모습은 어느새 여유가 있었고 무엇보다 즐거워해서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지난 학기 세 명의 신입생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신입생이 세 명입니다. 프라미스 꿈글의 윤재혁 (23세), 비전 꿈글의 황 에마(9세), 김 이삭(5세)학생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신입 교사이신 프라미스 꿈글의 이 호성, 비전 꿈글의 정 진선, 김 윤정 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원미니스트리의 양대 교육 프로그램인 꿈글 학교와 The ABLE Orchestra가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기를 즐거워하고, 가면 늘 행복한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5. 마지막 PTA 참석, “김 창근 교장 선생님,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지난 학기까지 2년 반을 꿈글 학교 교장으로서 수고하신 김 창근 목사가 교장을 사임했습니다. 김창근 목사의 다른 원미니스트리 사역을 위한 결정이었고, 교육 부서를 맡고 있던 윤보라 전도사에게 교장직이 이임되었습니다. 프라미스(1월18일)와 비전 꿈글(2월1일)은 각 캠퍼스에서 2020년 봄 학기 첫 PTA 모임을 가지면서 목사님과 감사 인사를 나누며, 새 교장과 새 PTA 임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장애인 한글 교육에 대한 비전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역을 추진해 온 김 창근 목사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6. 부모님들과 함께 만든 설날 행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경자년 설날 꿈글 행사를 부모님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전원 참석은 늘 어려운 이민 생활이지만 몇 분의 참석만으로도 설날 행사가 더욱 풍성해지고 따뜻해 졌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세배하고 누구 자녀이든 구별 없이 봉사자까지 세뱃돈을 받는 모습은 보기만해도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프라미스 꿈글은 부모님들이 끓여 주신 떡국을 먹는 시간을 가졌고, 비전 꿈글은 부모님들께서 준비해 오신 한국 전통 과자들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날 두 캠퍼스 모두 윷놀이, 공기놀이, 딱지치기, 제기차기, 투호 등의 전통 놀이를 준비하여 학생들과 봉사자들이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종종 부모님들의 멋진 재능과 열정이 꿈글을 함께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보의 창

TRANSITION FAIR

PHOTO GALLERY

발달 장애, 더불어 배우고 생각하기

글쓴이: 김 석주 (자폐 청년의 부모 / 음악 치료사/ 발달 장애 지원 전문가 포럼 교육 위원)

내가 살 곳은 내가 선택합니다. (1편)

“촌에 가서 농사 지으며 살고 싶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같은 집, 좋지.” “제주도? 강원도? 땅이라도 사놔야 할까 봐.”

발달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말씀들이다. 각박한 도시의 삶에 지쳐 있을 때, 이렇게 잠시라도 상상을하며 희망을 얻는다. 그리고 간혹 어떤 분들은 실제로 농사를 구상하고, 땅을 보러 다니고, 근교에 별장과 텃밭을 마련해 주말마다 가시기도 한다. 주 5일 동안 직장에서 쉼 없이 일한 아빠, 학교와 치료실에서 종일 공부한 자녀, 가사일로 학교일로 부모회로 땀 흘린 엄마, 열심히 일한 가족, 모두 떠나자! 그렇다. 주말만큼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산들 바람 속 햇살에 버무러진 흙밟으며 빨갛게 익은 고추따고, 주렁주렁 열린 가지 무쳐, 너풀너풀 상추쌈 먹으며 천국을 누려도 된다. 도시에서 “하지마라, 하지마라, 위험하다, 다친다.” 야단만 들어야 했던 자녀는 고추 좀 꺾어도 되고, 상추 좀 밟아도 된다. 부모들은 휴양지처럼 그리워했던 농촌에서 이렇듯 자유롭게, 편안하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고 꿈을 꾼다. 그러면, 발달 장애 자녀도 같은 꿈을 꿀까?

땡볕에서 매운 고추를 몇 시간이나 딸 수 있을까? 희지도 빨갛지도 않은 애매한 분홍 딸기를 골라 딸 수 있을까? 잡초와 모종을 가려 낼 수 있을까? 구수한 거름 냄새를 맡으며 고향을 느낄까?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에서 어릴적 친구를 추억할까?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발달 장애 청년은 어떤 꿈을 꿀까? 주말이면 패스트 푸드점에서 햄버거와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노래방에서 탬버린을 흔들고, 디즈니영화 보기를 기다릴 것이다. 마트에서 캐릭터 장난감이나 그림책을 사고, 실내 수영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운동하기를 즐길 것 이다. 단골 김밥집에서 초등학교 때 친구와 마주쳐 인사하고, 졸업한 학교앞 문방구에 들러 스티커와 필통을 골라 보고, 빌라와 아파트 사이 골목마다 익숙한 가로수와 작은 공원에서 아늑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발달 장애인에게 좋은 마을, 좋은 공간이란 어떤 곳일까?

신체의 질병이나 정신적 장애가 생기면 흔히들 공기 좋은 요양원이나 별도의 공간에서 집중 치료받고 생활하는 것을 떠올린다. 평생에 걸쳐 형성된 취향과 경험과 습관과 관계들, 모든 일대기를 제쳐두고 이렇듯 질병이나 장애로만 한 사람을 단순하게 규정지어 버리기 쉽다. 특히 인지력과 의사 소통에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들은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가족들의 판단과 권유에 좌우되곤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치료 비용을 지불하는 가족들에게 사회의 시선은 동정적이고 관용적이어서, 감히 월권을 지적하지 못한다. 표현 못하는 장애 당사자만 수긍하면 만사가 평화로워 보인다. (2편에 계속됩니다.)